

# 석유제품 수출액 5개월 연속 증가

1/4분기 37.9% 늘어 60억2449만달러 ... 수출단가 배럴당 30달러 상승

석유제품 수출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.

4월27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, 1/4분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60억2449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.9%가 증가해 5개월 연속 상승했다.

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2008년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수출액은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2009년 11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됐다.

1/4분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7212만배럴로 12.2% 감소했지만 2009년 1/4분기 배럴당 53.2달러였던 수출단가가 2010년 83.5달러로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증가했다.

수출액은 경유가 12.7% 증가한 19억9020만3000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, 이어 항공유가 25.9% 증가한 8억4041만달러, 휘발유가 123.4% 증가한 4억519만2000달러, 병커C유가 86.2% 증가한 2억4104만1000달러, 그리고 나프타(Naphtha)가 130.5% 증가한 2억2449만2000달러를 기록했다.

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13억8708만6000달러로 전체의 23.0%, 인도네시아가 6억8590만2000달러로 11.4%, 일본이 6억8526만1000달러로 11.4%, 미국이 6억6626만7000달러로 11.1%를 차지했다.

정유 관계자는 “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해 전년대비 수출금액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27>